



노래하며 느낀 행복을 전파하다

허리를 곧게 펴고 노래에 집중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만, 어르신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 줄 모른다. 어르신들은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힘이 난다”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어느새 진한 우정을 나누게 된 단원들은 노래와 삶을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거나 눈물이 가득 차오르는 순간도 마주한다. 이정자(68, 탄현1동) 어르신은 “어느 날 ‘오빠 생각’을 부르는데, 돌아가신 오빠 두 분 생각에 눈물이 나서 노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단원들이 부르는 ‘오빠 생각’이 제 마음을 토닥여주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노래의 힘인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실버동요합창단 활동을 통해 꿈을 이룬 단원도 있다. 방규옥(69, 탄현2동) 어르신은 “손자가 노래 부르는 걸 보면서, 어릴 적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즐겨 부르던 제 모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버동요합창단 창단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가입했어요. 노래 부르는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라며 합창의 즐거움을 전했다.



고양에서 울려 퍼지는 사랑의 하모니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합창에 대한 어르신들의 참여와 열정은 어느 젊은이보다 뜨거웠다. 좀처럼 맞지 않을 것 같던 합이 끝내 맞춰졌다. 연습과 연주에 몰입하며 연습을 이어온 결과였다. 지난 9월 ‘당장고 플리마켓’과 10월 ‘숯향기 마을축제’에서 어르신들은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단원들의 무대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객석에서는 중간중간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어르신들은 그때 온몸으로 느꼈던 울림과 전율을 잊지 못한다며,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 소절, 한 소절에 열정을 쏟는 어르신들이 전하는 하모니는 새해에도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전할 것이다.



“도전과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실버동요합창단이 찾아가겠습니다.”
- 조경순 탄현1동 주민자치회장 -

즐거움은 두 배로



참여 조건 50대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연습 장소 탄현1동 행정복지센터 2층
활동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11시 30분
문의 ☎ 031-8075-7817

